

고창 신성장동력 사업 87건 발굴

2025·2026 예산 발굴 보고회 마한역사센터 등 1조2943억 규모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 활력

고창군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창의 미래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다. 고창군 심덕섭 군수가 주재한 '2025년·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를 열고 신규사업으로 총 1조2943억원 규모 87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3일 3차 보고회까지 거친다.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지향하며 전략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춘 신규사업은 ▲전북 마한 역사문화센터 건립(500억원) ▲수소도시 조성사업(400억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340억원) ▲동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150억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조성사업 2단계(100억원) 등이 있다.

또 군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서 정책 제과도가 높고 다수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시책도 다수 포함됐다.

안전한 고창을 위해서는 ▲고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492억원) ▲대동·옥산·회룡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608억원) 등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질적인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



지난 20일 심덕섭(오른쪽) 고창군수 주재로 '2025년·2026년 국가예산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고창군 제공>

을 위해 ▲고창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축산분야 스마트팜 보급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건립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홍덕·신림·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스마트 농어촌도시 드론배달 시범사업 등이 발굴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부 중점사업에 부합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완성도를 높여 '더 큰 도약 더 좋은 고창'을 이루겠다는 다짐을 갖고 전략적 대응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웰빙+행복+건강 고창 관광 코스 개발

고창문화재단-원광디지털대 협약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원광디지털대학교와 웰니스(wellness, 웰빙+행복+건강) 자원 기반 문화·관광 분야 사업발굴을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익산시 소재 원광디지털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웰니스문화관광학과'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웰니스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정책 관련 정보 공유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석정은 천과 문수산 편백숲, 운곡습지, 명사십리 등 지역 웰니스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안중선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이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개발 대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KIST,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천연물 바이오소재의 연구협력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서명 후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구 교류 등 업무 협약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사장 최경식 시장)은 천연물 바이오소재의 연구협력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분원장 장준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은 ▲천연물 바이오소재 활용 연구 교류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사업 지원 및 과제 협력 ▲업무능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관련 제반시설 및 서비스의 상호 협의 하에 제공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

다.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는 국내 식물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천연물 바이오소재 발굴과 소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스마트팜 기반 기능성 식물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유일의 천연물 전주기 연구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 15일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와 진행한 연구세미나에서 남원시의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사업' 집중 논의된 바 있다.

이는 남원시가 추진 중인 바이오소재 원료공급을 위한 디지털정밀재배 연구사업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에 오세요 보세요" 브랜드 '오샘보샘'

상권활성화 사업 캐릭터 개발

정읍시가 80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통합브랜드 '오샘보샘'과 캐릭터를 개발했다.

정읍시는 통합브랜드와 캐릭터 개발에 앞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을 개최하고 상인과 시민, 관광객 등 1300여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디자인 전문가 자문은 물론 지역 4개 상권상인회와 논의를 거쳤다.

통합브랜드 '오샘보샘'은 "정읍으로 와서 보고 즐기라"는 의미로 '오세요 보세요'란 말을 정읍의 정체성인 '샘'과 조합해 간결하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캐릭터는 '토토(정읍민요 토끼타령)', '누누(정읍 한우)', '리리(생고를시장 오리숫대 설화)', '다다(월영습지 하늘다람쥐)'로 정읍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동물로 표현한 총 4종이다.

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브랜드와 캐릭터



토토 정읍민요 토끼타령 다다 월영습지 하늘다람쥐

정읍시가 상권활성화 통합브랜드로 개발한 캐릭터 '오샘보샘'.

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굿즈를 제작해 상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멋진 경험과 기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통합브랜드와 개발된 캐릭터가 정읍살고살정다온상권의 대내·외적인 인지도 상승과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복지 사각지대 먼저 찾아갑니다

'119 앱' 개발 등 노약동·금동 중심 안전 플랫폼 구축

남원시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신림동 반 지하 침수사고 등을 계기로 정보통신(IT) 기술과 지역공동체 활동을 접목해 읍면동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공모를 진행했다.

시는 2023년에 이어 이번 공모에도 선정되며 국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은 노약동과 금동을 중심으로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읍면동 복지안전 협의체 구성·운영과 찾아가는 복지·안전 교육, 주민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인공 지능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 '남원 복지·안전 119' 앱 개발 등이 추진돼 주민의 복지와 안전망 확장에 기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복지·안전 위기대응에 보다 촘촘하고 능동적인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신박한 아이디어로 정읍 농촌에 활력을

정책제안 페스티벌 전국 공모...관광·체험, 콘텐츠, 유통 등

정읍시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제안 페스티벌 전국 공모전'을 시행한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생산·유통, 가공, 상품개발, 관광·체험, 홍보, 콘텐츠 창작 분야 등에서 다양한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맛·멋·향 산업 육성"을 주제로 지역내 5인 이상 민간조직을 재구성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제안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사업화·고도화가 가능한 기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용을 참고해 오는 29일까지 추진단 이메일이나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될 경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테스트베드(1차 지원 700만원)사업을 진행하고 추후 단계별 사업(2차 지원 3000만원, 3차 지원 1억원)과 연계해 민간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전국단위의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 아이디어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핵심주체와 수익형 사업으로 성장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